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 회 사

'22. 9. 15.(목) 09:30

한국거래소(여의도) 컨퍼런스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후원하고,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위해
참여해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II .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황 및 평가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나온지는 꽤 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이슈가
그 동안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오히려 더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종합적이고 냉철하게 분석,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 최근 10년('12~'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PBR 비율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

이는 동일 산업이나 유사한 기업간 비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수준 뿐만 아니라,

최근과 같은 국내외 거시경제·금융상황 변경 등
충격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지속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향유하고,

기성세대가 쌓아 놓은 자산이
다음 세대의 성장동력으로 재투자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절대적 수준이 저평가되고 변동성도 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Ⅲ.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경기에 민감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구조와 남북문제 등 지정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범부처, 그리고

민·관 합동의 노력으로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자체적으로 개선할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발표한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과 같이 자본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①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내에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IPO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2]**광범위한 규제개혁**도 병행하겠습니다.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되어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의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하여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90년대 초('92년)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어,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 볼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될 다양한 이슈들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3]**“릴레이 세미나”**도 서너차례 더 개최하여,

자본시장의 체질을 한층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IV. 맺음말

여러분,
우리나라는 좋은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문화컨텐츠와 IT·플랫폼기술이 활용된 다양한 사업아이템들이
세계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新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전통 장치산업 분야에도
다양한 혁신기술들이 접목되어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합당한 평가를 받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되어
지속가능한 도약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우리 자본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뭄으로 물이 빠졌을 때 저수지를 고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자본시장의 약점을 꼼꼼히 보완하면
향후 여건이 좋아졌을 때
우리 자본시장은 더욱 크게 반등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분석과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